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어느 날 문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바뀌어 있음을 깨달았다. 순간 세상이 바뀌어가고 그에 따라 자신도 변화하고

용어들은 미래사회로 나아갈수록 더욱 일반화되고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미래사회에 대한 환상적인 꿈보다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불안과 답답함이 가슴을 죄어온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끝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죽음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감이 엄습해 오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다. 자동차·TV·컴퓨터·비행기·핵·전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TV, 컴퓨터, 비행기, 핵 등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의 질과 내용은 허전하고 불안하다. 자연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계속되고 인간은 욕망의 노예로 전락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과학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변화를 실감케 했던 용어들을 너리에 떠오르는데로 나열해 본다.

지구촌·세계화·21세기·정보화·자유시장·일류화, 이런 용어들은 편리와 풍요의 미래사회를 약속해 주는 것이다. 이는 인류로 하여금 환상적인 꿈을 갖게 한다.

이제 비로소 참담·참혹한 고통의 역사가 끝나고 인간의 오랜 꿈과 소망이 실현되는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한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바로 이어서 떠오르는 용어들이 있다. 생태계 붕괴·오존층 파괴·공해·환경오염·에이즈·핵·생명의 위기·무한경쟁·경쟁력 강화,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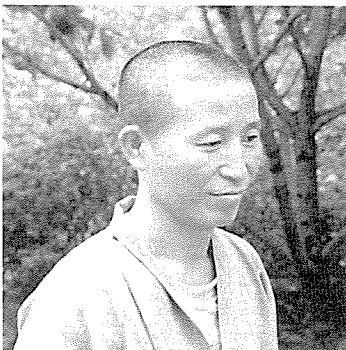
인간은 욕망의 노예로 전락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들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되어지는 삶의 질과 내용은 허전하고 불안하다. 실제로 체감되는 불안과 공포의 현상들을 생활속에서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현대는 편리할수록 더욱 바쁘게 쫓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빈부의 차이와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자극받고 확대됨에 따라 인간



도. 법

〈스님 / 선우도량 공동대표〉

은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삶의 여유는 오간데 없고 밤낮없이 뛰어아만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커녕 나날이 더욱 심각해지고 커지는 모순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과학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어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한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 한다.

TV와 신문을 보면 세계화·정보화 경쟁력 강화라는 포어들로 가득하다. 앞으로 개인소득 2만달러시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시대, 모든 것이 기계화·자동화되는 시대가 곧 다가온다고 한다. 머지 않아 인류의 오랜 꿈인 낙원이 실현된다고 하니 흐뭇하기 그지없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한편에선 TV·신문에는 환경오염, 생태계 붕괴·반인륜적 행위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말세적 현상을 다루는 기사가 장식되고 있다.

이어서 이런 추세로 나아가면 인류의 파멸은 시간문제일 뿐 피할 길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파멸의 비극은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오만과 무한 욕구가 자초한 결과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접하면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꿈은 일시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앞선다. 과연 우리는 어느 장단에 발맞추어 춤을 추어야 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현실, 모순된 현상, 미래의 불확실함

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 적응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논리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진정 현대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은 올바른 것인가. 미래사회는 정말 인간다운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하거나 주저할 것 없이 적응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괜찮은 것일까.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분명 현대사회를 이끌어 온 주역이 과학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과학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울고 웃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과학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인간을 위한 과학이 되려면...

이 시점에서 오늘날이 역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지점이라고 가정해 보자.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이 인류가 추구해 온 이상과 가치의 전부라고 생각해 보자.

피땀 흘리며 밤낮없이 노력해서 실현하고자 한 것이 이런 삶이었던가. 머리 좋고 잘난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고자 한 것이 이런 세상이었던가.

현재 우리들은 세계화로 명명되는 소위 발전된 세상에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가장 원시적이고도 동물적인 자기중심의 이기적 욕망을 쫓는 천박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한걸음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보화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약

육강식과 생존경쟁이라는 가장 비인간적이고도 야만적인 삶의 방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고도 우리는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러고도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사회가 이와 같은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동물적인 욕망의 문제를 간과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문제의 원인이 욕망에 있음을 직시하고 욕망의 문제를 간과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문제의 원인이 욕망에 있음을 직시하고 욕망의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과 힘을 갖추지 못하는 한 과학기술은 삶을 파괴하는 흥기로 변하게 될 것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양육강식과 생존경쟁이라는 비인간적이고도 야수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힘을 갖추지 못하면 인류사회가 참담하게 될 것임을 걱정하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라고 한다.

확실한 것은 과학에 부여된 권위와 힘과 역할로 볼 때 인간을 위한 과학이 되려면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그에 올바른 응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67

